



2024 남부영재교육원 융합과학캠프

읽건쓰 활동 결과 모음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워밍업(Warming Up)

천문학 관련 읽을 거리, 볼거리 감상 후 감상평 댓글 달기

리porter(Rewriter)

캠프 활동 중 프로그램별 미니 소감 작성

쿨다운(Cool Down)

쓰기로 출력하며 생각 정리하기(탐구보고서, 가상인터뷰, 창작 시)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융합과학캠프 읽견쓰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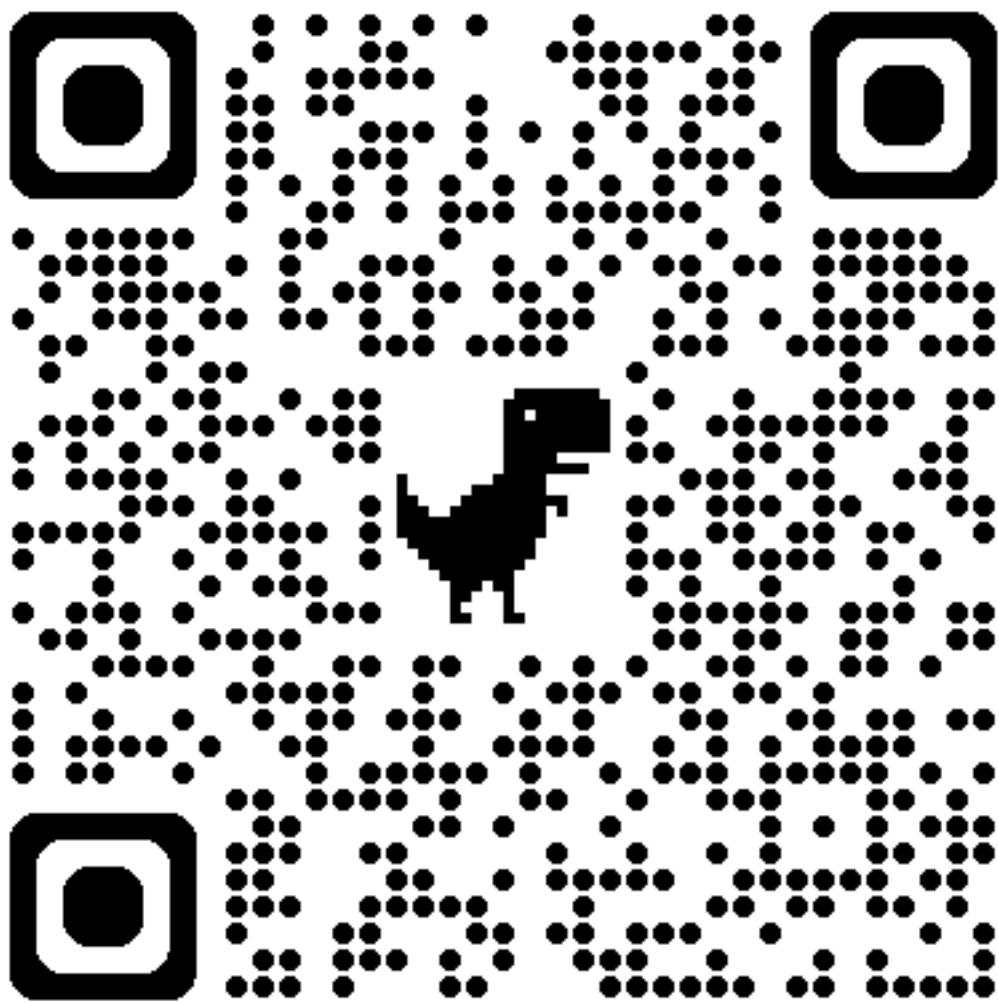
* 2024 융합과학캠프 '별 보러 가지 않을까'

읽견쓰 쓰기 활동 내용

시간	내용	내용
읽기 8/26(월) -8/30(금)	읽밍업 (캠프 전 준비 활동)	· 천문학 관련 읽을거리, 볼거리 감상 후 3개 이상 감상평 댓글 달기 - 추천 링크 패들렛 공유 * 추천 링크 목록(읽을거리, 볼거리.) 1. 우주 속에 우리는 혼자인가?, 경향신문, 2006년 6월 22일. 2. 내가 명왕성을 죽였습니다!, 월간 채널에스, 2021년 5월호. 3. '행성 삼키는 별' 우주서 관측... 50억년 후엔 지구도 태양에 잡아먹힐까, 동아일보, 2023년 5월 8일. 4. [이토록 유익한 인터뷰] 별처럼 시처럼, 과학을 노래하다, 광주일보, 2024년 3월 27일. 5. <문학칼럼-시인의 눈> 별과 문학, 전라매일, 2020년 5월 17일. 6~10. 기타 '별'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 관련 링크 추가 공유 - 댓글 작성 조건: 아래 3가지 조건 포함하여 작성할 것. 1. '별'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 혹은 느낌. 2. 링크된 내용과 연결하여 캠프에서 기대되는 점. 3. 최소 30자 이상.
걸기 8/31(토)	부스터 (적극적인 캠프 참여)	· 캠프 활동 중 미니 소감 작성 - 패들렛 내 프로그램별(Planetarium 영상, 성도수업, 영상강의) 섹션 마련 * 섹션별 작성 항목 1. 알고 있었던 점 2. 알게 된 점 3. 나의 생각 및 느낌 - 작성 시간: 프로그램별 종료 직후 5분 + 귀가하는 버스 안
쓰기 9/7(토)	쿨다운 (활동내용 정리)	· 쓰기로 출력하며 생각 정리하기(아래 항목 중 택 1) 1. 탐구보고서 작성하기(기사글 및 칼럼 형식 포함) - PREP 말하기 기반 쓰기(Point→Reason→Example→Point Repeat) 2. 1학년 국어교과 내용 연계 - 가상의 면담하기 글 쓰기 - 추천 링크의 작성자 및 대상자를 가상으로 선정하여 '별'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상의 인터뷰 진행하기 3. 시(시화 가능), 수필 작성하기 - 활동 내용 바탕으로 시, 수필, 시화(시+그림) 작성하기 · 패들렛에 작성 글 공유 및 상호 간 댓글 달기(개인별 3개 이상) - 알게 된 점 + 감상평 등을 기반으로 글자 수 30자 이상.

별 보러 가지 않을까?

읽기, 걷기 활동 보기(패들렛)



'강명수 시인' 가상 인터뷰

용현여자중학교 1학년 류연우

* <법성포 블루스>의 저자이자 수 많은 시를 쓰신 시인 강명수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강명수 시인님께서서는 별을 주제로 한 작품이 왜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별이 우리와 친숙하면서도 아직도 미지의 존재라는 점이 많은 예술가들에게 매력적이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은 눈을 떼 수 없게 아름다운 데다, 별에는 수학적 법칙까지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은 예술가들의 흥미를 끌어내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시인님은 별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별이 우리의 길잡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사람들은 실제로 별을 이용해 길을 찾았고, 현대의 사람들은 별에게서 창작의 영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별들은 사라지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니 아주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네, 마지막으로 시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실 말이 있나요?

-시인은 관찰력과 창의성이 중요합니다. 남들은 쉽게 지나치는 것에서 특별함을 찾아낼 수 있어야죠. 이런 능력은 태어나면서 부터 얻는 게 아니니 지금 부터 노력하면 좋은 시인이 될 수있을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신 강명수 시인님께 감사드립니다.

탐구보고서

인주중학교 1학년 김근우

우리나라가 우주에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6년 정해진 행성의 정의에 따르면 행성은 자신의 중력으로 인해 형태가 유지되어야 하고, 궤도 주변에 다른 천체가 없어야 한다. 해왕성 바깥에는 행성이 없을까? 태양계 외연 천체 중에는 궤도가 찌그러졌으며 궤도의 반지름이 해왕성의 5배가 넘는 천체가 몇 개 있다. 그런데, 이 천체들의 궤도를 그려 보면 모두 특정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고 한다. 하지만 천체의 궤도가 이렇게 틀어질 확률은 0.007% 정도라고 한다. 해왕성 밖, 제 9행성이 존재한다면, 그 천체가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천체들의 궤도의 치우침을 설명할 수 있다. 태양계 외연 천체 중에는 45도 정도로 극단적으로 많이 기울어진 천체가 있다. 한 일본 대학교에서 제 9의 행성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다른 천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다.

최근 몇 년 동안 NASA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관측 사상 가장 멀리 있는 천체를 포함하여 10개 가까이 새로운 천체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제 9의 행성이 있다고 해도 이 천체는 공전 속도도 느리고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멀기에 매우 어두워서 현재의 관측기술로는 관측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미지의 행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국가는 공익이 기대되는 우주과학 기술에 더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탐구보고서

인천신정중학교 1학년 편서진

우리는 과학이란 학문 자체에 의미와 쓰임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 과학은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 지식을 의미한다. 사람들에게 맞춰져 돈을 위해 나아가는 것은, 과학이란 학문에 걸맞지 않다. 물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과학이란 학문에 순결한 연구라고 할 수는 없다. 난 그런 연구를 옹호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와 순간적 편리함에 유혹 되어, 과학의 의미를 잊어서도 안 된다. 과학의 부작용은 선한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악하게 쓰이고, 사람들의 욕심과 무관심으로 일어난 환경 오염과 지구의 이상 반응이 등이 있다. 과학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도록 연구하는 것이 순결한 뜻에 과학 연구라고 생각한다. 19세기까지는 천문학자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밤하늘에서 새로운 천체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항상 우리 곁을 지켜주는 자연환경을 연구하고 새로운 내용과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원초적인 과학의 학문에 집중한 순결한 연구의 세계였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사람들이 만족하고 필요해 하는 연구에만 집중하고 돈이 되는, 이익이 되는 연구에 맞춰져 과학에 본질을 잊고 있다. 그렇지만, 마이크 브라운은 달랐다. 그는 많은 반대와 고난에도 맞서 새로운 별을 찾아내려고 끈기 있게 연구했다. 그는 명왕성보다 더 먼 태양계 끝자락 어둠에서 새로운 천체 2개를 발견했다. 명왕성과 비슷한 크기의 천체와 명왕성보다 더 큰 천체도 있었다. 그러나 그와 엇비슷한 크기의 행성이 무수히 많이 나타났다. 이 무수한 행성을 다 태양계에 행성이라고 불러야 할까? 여기에서 궁금해지는 게 있다. 과연 행성이란 무엇일까? 그러나 인류는 행성이란 단어와 의미에 정의를 내린 적이 없다. 마이크 브라운은 개인의 연구에 대한 욕심보다 과학의 합리성을 택했다. 그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새로운 행성 추가에 반대를 주장했다. 과학의 본질을 찾아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명왕성마저 태양계에서 퇴출 당하는 결과를 얻었다. 현대 천문학 역사에 길이 남게 된 이 혼란이 지난 뒤, 브라운은 미국 시민들에게 역적이 되었다. 미국의 천문학자가 발견해, 오랫동안 태양계 가장 끝의 행성으로 사랑받던 명왕성을 더 이상 행성이라 불릴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결과를 초래했지만, 나는 마이크 브라운의 원초적인 과학에 대한 애정과 그걸 밝히고 말겠단 끈기를 존경한다. 사람들의 반대에 맞서서 자신의 의지를 향해 나아가고 진심으로 과학을 좋아하며 원래의 과학에 역할을 연구하는 것이 정말 천문학 연구에 진심이라고 느껴졌다. 오늘날도 이런 원초적이고, 편리함에 다듬어진 과학이 아닌 정말 사람들을 돕고 궁금한 내용을 밝히는 과학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 후 단상(斷想)

인주중학교 1학년 김보민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하늘에 별이 반짝인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렇게 최초로 만들어진 달력이 '음력'이다. 하지만 달의 모양만 보고 대충 날짜를 알아야하며 실제 계절과 달력이 어긋나는 부분이 많아 불편했다. 사람들은 음력보다 좀 더 주기적인 달력이 필요해 하늘을 더 열심히 관찰하기 시작했고, 별들이 항상 같은 자리와 같은 시간에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주기를 두고 변한 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로써 천문학이라는 개념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갔다.

밤하늘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달력을 만든 옛날 사람들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별이란 참 신기한 존재 같다. 어떻게 주기를 두고 같은 자리와 같은 시간에 반짝일 수 있을까? 별은 대체 얼마나 멀리있고 어디서 반짝이길래 우리가 이걸보고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천문학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고 앞으로 별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

참여 후 단상(斷想)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1학년 김민준

과학자들은 50억 년 뒤 태양을 예측했을 때 태양이 죽으면서 태양 중력으로 인한 수축이 시작되고 수축은 곧 열을 발생시키므로 다시 1000만도 이상의 온도로 다시 변하며 팽창할 것이다. 팽창하며 수성, 금성을 잇따라 삼키고 그 다음은 지구의 순서가 될 것이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예측을 했나?

이유는 이렇다, 과학자들은 약 1만 2000광년 떨어진 곳에서 별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을 포착했다. 과학자들은 그냥 신성이겠거니 했지만 다시보니 신성은 50000배~ 100000배만큼 밝아지기 때문이다. 이번에 관측된 현상은 신성이 아닌 다른 별이 50억 년 뒤 태양처럼 수축했다가 팽창하며 주위를 돌던 목성 크기만한 행성을 집어삼키는 점을 포착했다.

그 결과 그것으로 50억년 뒤 지구도 태양에게 흡수 당할 수 있다는 증명을 하게 되었다.

나는 이런 기사글을 보고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지구가 아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으로 떠나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참여 후 단상(斷想)

인천하늘중학교 1학년 구단우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물이 존재하고 살아갈려면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들이 받쳐주어야 한다. 가장 잘 알려진 조건 중 하나는 골디락스 존이다. 골디락스 존의 뜻은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이다. 골디락스 존은 모 항성과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곳에 생긴다. 이는 모 항성과 가깝거나 먼 곳은 온도가 극단적으로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기에 그렇다. 온도가 높거나 낮으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행성의 자전 여부, 자기장의 유무등 셀 수 없이 많은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많은 조건을 만족하는 행성이 있을까 의심이들 수준이다. 하지만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행성이 있다. 바로 지구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구를 보존해야한다. 우리의 기술이 지구를 대가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행성은 지구 말고는 존재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꿈을 찾는 별

관교중학교 1학년 임동욱

깊은 밤, 어둠 속에서
별들이 속삭인다.
고요한 하늘 위에서

멀리서도 빛나는 그대,
작은 숨결 같은 빛.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안겨줘요.

수 많은 별들 사이에서
하나의 길을 찾듯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별빛은 반짝이죠.

밤이 깊어 갈수록 더
별은 더 선명해지고,
그 작은 빛이 모여
우리의 꾸이 돼요.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쓰기 활동 모음

밤 하늘의 반짝이는 조명들

관교중학교 1학년 송찬솔

북극성 북극성 반짝이는 북극성
밤하늘의 길잡이이자 모두의 나침반
항상 제 자리를 지켜주는 반짝이는 북극성

은하수 은하수 아름다운 은하수
견우별과 직녀별 사이 아름답게 흐르네
마치 두 사랑을 이어주듯

별자리 별자리 신비로운 별자리
밝은 별 이으면 그림같은 별자리가 반짝이네
한 눈에 담기도 어려운 웅장한 별자리

별

신흥중학교 1학년 김민준

신비로운 별 빛,
어둠을 뚫고 나오는 꿈들
우주속의 속삭임,
우리 마음에 담긴 감정들

바람에 실려오는 노래처럼,
별들은 춤 추며 이야기해
잊혀진 과거와 미래 조각들,
모두 함께 빛나고있어

밤하늘의 심연 속,
우리의 소원도 함께 흘러
신비로운 별빛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인데

그 별

신흥중학교 1학년 김민준

사람들은 말하지,
저기 밝은 별을 보라고.
힘든 세상속 빛나는 존재가 되라고.
그렇게 살라고

내가 찾는 그 별은,
내 머리 밑에서 날 비추지.
그 빛이 얼마나 힘들게 날아왔는지,
내가 해아릴 수 있을까?

그 별빛이 힘들게 나에게 올 동안,
별이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들은 알까?

별 보러 가지 않을까?

쓰기 활동 모음

별

신흥중학교 1학년 박시우

저기 밤하늘에 있는
빛나는 별
반짝반짝
빛나는 별
어두운 밤을 비쳐주는
빛나는 별
방향을 모를때 방향을 알려주는
빛나는 별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

별 보러 가지 않을까?

쓰기 활동 모음

별 하나

관교중학교 1학년 배승빈

어두운 밤하늘에
찬란히 빛나는 저 별 하나가
거리를 비추네

저 우주 너머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밝게 빛나네

저 별하나는 오늘도
거리를 비추네

별 보러 가지 않을까?

쓰기 활동 모음

별 하나

관교중학교 1학년 배승빈

어두운 밤하늘에
찬란히 빛나는 저 별 하나가
거리를 비추네

저 우주 너머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밝게 빛나네

저 별하나는 오늘도
거리를 비추네

별 보러 가지 않을까?

쓰기 활동 모음

별

인주중학교 1학년 조규형

별이란 참 좋은 것 같다.

왜냐하면 보고있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도 콩닥콩닥 뛰기 때문이다.

별이란 참 신비로운 것 같다.

왜냐하면 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
재밋기도 하고 신기하기도하기 때문이다.

별이란 별인것같다.

왜냐하면 별이기 때문이다.

별과 나

인화여자중학교 1학년 최지혜

어두운 밤, 혼자일 때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반짝인다

작은 별들 속에 담겨진 각자의 이야기가 느껴진다

별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빛이 내 마음에 닿을 때,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따뜻한 위안이 된다

밤이 깊어지면,

별빛이 더 선명해지고 밤하늘의 별빛이 더 빛나며,

별들과 함께하는 기분이 든다

어두운 밤, 별과 나,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이 순간을 간직하고 싶다

별 보러 가지 않을까?

쓰기 활동 모음

반짝반짝 작은 별, 사실은 어마어마한 별.

용현여자중학교 1학년 오하진

누구나 어릴 적 한 번 째름 들어봤을 동요 작은별
동요에서만큼은 금방이라도 눈에 보일 듯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는 별

누구나 마음 속에 큰 별을 품고 산다
큰 별은 모두의 마음 속에서
서서히 씨앗을 뿌려 간다

비로소 그 별의 씨앗은 결실을 맺고
사람들의 염원을 들어준다

별 보러 가지 않을까?

쓰기 활동 모음

별

인주중학교 1학년 정윤원

밤이 깊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북쪽 하늘에 떠오른 작은 별 하나
우리의 길을 조용히 밝혀주네

마음이 어두워 희망이 사라질 때
내 앞에 떠오른 작은 별 하나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밝혀주네

우주의 발

인천재능중학교 1학년 송재훈

시간이 지나고,공간이 흔들리며
여기가 어딘지도 가늠할수 없는곳

마지막 한줄의 힘을 짜내어
빛이 인도한 곳으로 왔네

마침내 저 어여쁜 푸른빛이
내 눈망울안에 들어오면

저 어여쁜 푸른빛은
오늘도 넓은 우주에 발을 내딛네

여름의 대삼각형

영종중학교 1학년 송지훈

여름밤 별빛이 쏟아지는 순간
송암의 야외 별 관측실에서
우주가 나를 감싸네

베가의 눈부신 빛
데네브의 고요한 속삭임
알타이르의 강한 의지

세 별이 그려낸 대삼각형

내 마음은 그들 사이를 오가며 꿈을 꾸고
끝없는 밤하늘을 바라보니
별들의 이야기가 들려와

우리의 희망과 미래를
속삭이는 듯해

그 빛나는 별들이
나를 이끌고
끝없는 우주 속으로
날아가고 싶어

별

인천공항중학교 1학년 민대원

별
볼 수는 있지만 잡을 수는 없다.
생각할 수는 있지만 느낄 수는 없다.
예상할 수는 있지만 알 수는 없다.

때로는 우주라는 사막의
전갈이 되고
때로는 우주라는 들판의
강이 된다.
때로는 우주라는 바다의
물고기가 되고
때로는 우주라는 숲의
사자가 된다.

밤하늘을 예쁘게 수놓는
보석
끝없이 펼쳐진 어둠을 가르는
화살
빛조차 잡아내는
중력장

오늘도 내일도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를 반긴다.

별 보러 가지 않을까?

쓰기 활동 모음

어둠 속 빛

용현중학교 1학년 김지후

하늘에 어둠이 드리우면
각기다른 빛들이 나타나
어둠을 밝히네
별들 사이에서
나는 하늘의 나침반을 찾아
빛들을 이어서 그림을 그린다

별 보러 가지 않을까?

쓰기 활동 모음

별의 방향

인성여자중학교 1학년 민지우

별빛이 쏟아지는 밤

하늘 속 작은 점들

서로 다른 빛으로 빛나며

우리를 관찰하네

별은 우주의 지도

어둠 속의 희망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비춰주네

별 보러 가지 않을까?

쓰기 활동 모음

별

용현중학교 1학년 윤호준

깜깜한 밤하늘을 바라보다
빛나는 별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보이지 않았던
주변의 수많은 별들까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나 역시 나의 장점들 중
단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자

비로소 보이지 않던 수많은 장점들까지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별 보러 가지 않을까?

쓰기 활동 모음

여정

신흥여자중학교 2학년 백정연

시간의 벽을 넘어
마지막 힘을 내어
그 빛은 우리의 눈에 들어온다.

마침내, 내 눈동자에 닿는 순간
그 빛은 우주의 긴 여행을 끝낸다.

사라질 때까지 별 하나가
숨을 내쉬듯 빛을 내보내어
그 빛은 수천 광년의 여행을 시작한다.

우주의 바다를 가로지른다.

미래의 우주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2학년 천지훈

"우주는 어떤 세상일까?"

궁금했던 나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별을 관찰했다.

지금도 되어서도 아직 모르는게
많은 나는 다시 한번 별을 관찰한다.

그런데 그 별의 빛은 지금이 아닌
몇 십년 전의 모습이라고 한다.
아마도 내가 보고있는건 내 어렸을 때
모습으로 별은 빛날 것이다.

그 별은 아직 나의 추억을 가지고 있고
다음이 지나고 몇십년 뒤에 봐도
별의 추억은 그 시간으로 고이 간직할 것이다.

유성

송도중학교 2학년 노대일

길고 긴 시간 끝에
푸르고 아름다운 별에 다다릅니다

길고 긴 여정 끝에
여태 찾아왔던 이 별에 다다릅니다

밝고 아름다운 빛을 내며
수천 년 쉬지 않고 달리며

그런 나의 맘을 알기나 하는지
눈길도 안 주고 제 길을 갑니다

그들에게는 수평선 너머로 저가는 빛일뿐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쓰이는 작은 빛일뿐

희망의 별

신송중학교 2학년 정이루

어두운 밤, 하늘을 올려다보면
수천개의 별들이 나에게 속삭인다.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우리를 밝혀주며
어둠 속 우리에게 빛을 주는 그들

길을 잃은 순간에도
별은 변함없이 본인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

별 보러 가지 않을까?

쓰기 활동 모음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

신흥중학교 2학년 강태린

깊은 밤, 가장 먼저 보이는 별
시리우스, 너의 빛은 눈부시다.
멀리 있지만 누구보다 가까운 듯
하늘을 가르며 길을 비춘다.

차가운 겨울밤, 너는 여전히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
어둠 속에서 반짝인다.

내 마음속 작은 별

인주중학교 2학년 연규원

어두운 하늘 속, 밝은 점 하나
그 작은 빛은 끝없이 달리네
고요한 밤 속, 선명한 점 하나
나의 마음속 어둠을 밝혀가네

세월을 지나가며 빛나는 별
소리 없이 내 심장에 스며들어
또 다시 나의 친구가 되어주네

별은 내 마음을 알고 있을까.

어두운 하늘 속, 밝은 점 하나
그 작은 빛은 계속해서 달려
마음의 깊은 어둠을 밝혀주며
희망의 길을 비추네

별 보러 가지 않을까?

쓰기 활동 모음

소중한 빛

인주중학교 2학년 정윤지

푸르던 하늘이 까매질 즈음

하나둘씩 조명이 되어

길거리를 비추네

조명이 되어준 소중한 빛은

까맣던 하늘이 푸르게 변해갈 즈음

내 마음도 비추네

밤하늘의 그리움

인천중산중학교 2학년 권도현

별빛이 흐르는 밤하늘 아래,
한 남자아이, 고요한 숨결로
잃어버린 여자아이를 그리워하네.
반짝이는 별들은 그녀의 웃음,
은하수 속에 숨겨진 기억처럼,
아련하게 그를 부르며 스친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밤바람에 실려,
별들의 속삭임과 함께 날아가네.
눈을 감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꿈속에서라도 다시 만나길,
그리움은 언제나 별처럼 빛나네.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쓰기 활동 모음

별

인주중학교 2학년 정서현

하늘이 수 놓은 아득한 밤하늘
배경삼아 걷다보면
저 멀리 나를 향해 웃고 있는 별들이
내 마음을 품어주고 가네

별빛이 비추는 아름다운 밤
근심걱정 털어보면
저 멀리 나를 항상 지켜보던 별들이
나에게 속삭이고 가네

별

인주중학교 2학년 강하윤

별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밤을 뚫고 퍼져나가며
별들이 속삭이며 춤춘다.

고요한 밤 속에서 별들이 반짝이며,
그들의 눈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우리는 그들의 외로운 노래를 듣고,
어둠 속의 희미한 불빛처럼 느낀다.

무한한 어둠 속에서 더 빛나는 별들,
그들의 은하를 따라 우리의 길이 열린다.

별 보러 가지 않을까?

쓰기 활동 모음

별

인천남중학교 2학년 한원담

어두운 밤을 밝히는 별
어떤 때에는 지도가 되어주는 별
밤하늘 속 그림처럼 보이는 별
많은 사람들의 낭만을 담은 별

그리고 별같이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고픈
마음속 별을 품은 나

밝고 환한 밤 속에서

인천남중학교 2학년 손지율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들은 말하지
저 별들보다 우리가 더 밝게 빛난다고
저 별들보다 우리가 더 크고 더 많다고
그런데 왜 하늘을 보니

아니야, 아니야
우리 끼리가 너무 가까워서 그런거야
별들 끼리가 너무 멀어서 그런거야
그런데 왜 땅을 보니

알아도, 알아도
우리가 어두울 수는 없지 않니
별들이 다가올 수는 없지 않니
그러면 어떻게 하니

믿어요, 믿어요
우리가 저 별로부터 왔다고요
우리가 저 별을 향해 간다고요
그러면 말이죠

보여요, 보여요
저리도 밝고 환히 빛나면서
저리도 많고 커다란 저 아름다운
별들이 보여요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프다

별빛이 내리는 밤

인천중산중학교 2학년 이우성

수 많은 빛이 나를 향해 내려온다

수 많은 빛이 나를 만나려 온다

그러나 그 빛들은 점점 어둠속으로 사라져

수 많은 세월을 버틴 빛만이 내게로 온다

이 빛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것일까

그저 내가 갈 길을 밝혀주고

혼자 외롭게 두지 않게 해줄뿐

내가 할수있는건

별빛을 나침반 삼아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것뿐인데

너의 이름, 별.

영종중학교 2학년 김영진

밤의 고요 속에 피어난 꽃
어둠을 가로지르는 빛의 작은 점
바람에 실린 꿈들이 모이는 곳
저 멀리서도 우리를 비추는 손길

한낮의 태양이 잠든 순간
조용히 눈을 뜨네
고독한 마음에 위로를 주는 존재
무수한 이야기 담긴 밤의 노래

작은 네가 속삭이는 말
은하수 너머에 숨겨진 비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늘 곁에서 빛나 주는 너의 이름, 별

너라는 별

인천하늘중학교 2학년 김채희

깜깜한 어둠 속 밝게 빛을 내는 것들

밝게 비추는 많은 것들 중

어느것은 행성

어느것은 인공위성

어느것은 별

참 다양하고 많지만

왜 너는 찾기 어려울까

빛을 밝게 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걸까

지구에서로부터의 나오는 너무나 밝은 빛들로 자신감을 잃은걸까

어째서일까

나는 너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

그니까 보여줘 너의 모습을

밝게 빛나는 모습을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쓰기 활동 모음

별

인천공항중학교 2학년 이하루

어두운 밤 하늘에는
우리의 길을 찾아주는 별들이
제각기 나타난다

하늘의 길잡이가
오늘도 누군가를 인도한다

한참 전의 빛이
오늘의 우리를 인도한다

세월 속의 별

인성여자중학교 2학년 조예담

인간으로서 볼수있는 별은 바다처럼 흐른다
세월도마치 강물처럼 흐른다
우리의 삶도 그 강물을 따라 흘러간다
어린시절 희망과 소원은
시간 속에 묻혀 사라져간다

세월은 흘러가지만
우리가 남긴 흔적은 영원히 남아
우리라는 인생의 이야기로 남는다

별도 세월에 따라 흐르지만
기억해주는 이 , 인간만 있으니
그저 빛만 남아 흘러간다

허나 별들이 빛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며
간절하게 품고사는 희망에 행복을 보태어주니

어쩌면 ,별들이 빛나여 우리의 세월의 안식처가 되어주네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쓰기 활동 모음

밤 하늘의 별

인천재능중학교 2학년 전현진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소원을 담아 빛나네.
어둠 속의 작은 희망,
우리를 이끄는 길잡이,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친구

우주, 지구의 자연을 담은 곳

용현중학교 2학년 황동희

우주 신비한 그곳은,
지구의 자연을 담았다.

고래, 물고기는
우주라는 바다를

전갈, 뱀은
우주라는 사막을

독수리, 백조는
우주라는 하늘을

황소, 사자는
우주라는 땅을

인간은
우주라는 공간 안에

별이 되어
거닐고 있다.

유성

인천현송중학교 2학년 박성연

짧은 시간 빛을 발하고선 결국 사라지고 마는 구나

우주의 작은 먼지같던

너는

광활하고도 외로운 우주 속을

떠돌고 있던

너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노력을 하며

한 순간의 빛을 내고 만다

누군가는 보지 못했을 그 짧은 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빛나고 있던

너를

나는

기억한다

2024 남부영재교육원 융합과학캠프

읽건쓰 활동 결과 모음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